

# 2024 에티오피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평화협정에도 정치적 불안정 지속	6
나. 내전으로 냉각되었던 대외관계 회복 노력	7
다. 대외 채무 조정 노력	8
라. 외화 규제 지속	9
마. 에티오피아의 BRICS 가입	10

##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2
2. 시장 분석	20
가. 시장 특성	20
나. 교역	21
다. 투자	23
라. ODA	25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8
가. 교역	28
나. 투자 진출	31
다. 협력 유망 분야	33

## III 진출전략

---

1. PEST 분석	36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7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8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5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48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49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0

Chapter



---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



## 1

## 개요

### 가. 시장 전망

▣ (총평) 에티오피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년 6.25%, '23~'27년 평균 5.5% → 6.6%로 상향되었음(티U)

- 높은 물가상승률, 정치적 불안정, 외환보유고 고갈은 단기적으로 경제 부담으로 작용,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 원조가 회복되어 경제성장에 기여 전망

▣ (단기) 정치적 불안정 지속, 외환보유고 고갈 등이 경제성장 저해 요인

- 내전의 여파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30%의 물가상승률,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 속도 가속화와 1개월의 수입 수요만 충족 가능한 외환보유고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장기) 내전 평화협정으로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 재개로 경제 드라이브

- 한편, 내전 중 인도주의 위기 우려로 자금 지원을 중단한 국제사회가 '23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자금 지원을 재개하고 IMF 프로그램 또한 '24년 초에 시작되면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며 '27년에 7.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 구	백만 명	106.4	109.2	112.1	115.0	120.3	123.4	126.5	129.7
명목GDP	십억 달러	76.8	79.8	93.4	96.5	99.1	118.4	152.5	165.0
1인당 명목GDP	달러	2,022	2,154	2,316	2,426	2,559	2,812	3,025	3,190
실질성장률	%	9.6	6.8	8.4	6.1	5.6	5.3	6.0	6.2
소비자물가상승률	%	10.9	13.8	15.8	20.3	26.8	33.9	32.8	29.6
재정수지(GDP대비)	%	-3.8	-2.5	-2.7	-3.0	-3.1	-5.1	-4.8	-4.3
총수출	백만 달러	3,030	2,705	2,746	3,253	3,930	3,970	4,233	4,564
(對韓 수출)	"	55.8	45.7	51.8	65.1	90.2	125.1	n/a	n/a
총수입	"	14,236	13,716	13,056	11,762	14,333	16,735	18,403	21,725
(對韓 수입)	"	167.2	145.6	157.3	159.9	220.7	154.5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11,206	-11,021	-10,310	-8,509	-10,403	-12,765	-14,180	-17,161
경상수지	"	-5,929	-4,611	-5,025	-2,719	-4,507	-5,160	-5,949	-7,13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23.87	27.55	29.17	34.96	43.79	52.01	57.00	71.62
외환보유고	백만 달러	3,046	3,987	2,993	3,046	1,631	1,016	1,394	2,033

주: 2022년까지는 실적치, 2023년부터는 전망치임

자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8월 조회 기준, 對韓 수출입 통계는 GTA

- ※ 평화협정에도 북부지역 내 정치적 불안정 지속
- ※ 대외관계 회복 노력
- ※ 대외 채무 조정
- ※ 외화 규제 지속

## 가. 평화협정에도 정치적 불안정 지속

▣ 에티오피아 내 북부 티그라이 지역과 다른 북부 지역에서 2년간의 분쟁 끝에 '22.11월 연방정부는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 TPLF)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정치적 불안정 지속

- '23.3월 에티오피아 의회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의 테러리스트 지정을 해제하고 티그라이에서 TPLF가 주도하는 임시정부 임명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 '23.4월에 연방정부가 모든 지역 보안군과 주 산하 민병대를 해산한 이후, 암하라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정부를 향한 불안과 폭력을 증가시킴

- 연방정부의 중앙집권화 노력은 향후에도 정치적 갈등의 논쟁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번영당(Prosperity Party, PP)이 주도하는 행정부 내에서 가장 큰 인종 그룹인 암하라(Amhara)와 오로모(Oromo) 지역 출신 인사들 간 벌어지는 정치적 경쟁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게 될 것임
  - 오로미아주의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정도가 정치적 소외감을 초래하여 '19년부터 정부에 맞서 무장 투쟁을 벌여온 오로모 반군 운동인 오로모 해방군(Oromo Liberation Army, OLA)에 힘을 실어줌

▣ 한편, 에티오피아 의회는 암하라 지역 정부군과 Fano 민병대 간 갈등 고조로 '23.8.15일에 암하라 지역에 비상사태를 비준하는 등 정치 불안 지속

- 암하라주의 파노(Fano) 민병대는 2년간 지속된 정부군과 티그라이 반군 사이의 내전 중 정부군을 지원하였으나, 종전 후 에티오피아 정부가 지역 민병대를 정부군 및 경찰에 통합하라고 명령하여 연방정부와 관계가 틀어짐

## 나. 내전으로 생각되었던 대외관계 회복 노력

### ▣ 미국 재무부는 '23.6월 말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인권 침해 지정을 해지하여 '24년에 외국 원조 및 자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

- 미국과 UN은 '23.5월에 에티오피아 정부의 식량 원조 유용을 적발하여 對 에티오피아 식량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에티오피아에 대한 주요 인권 침해자로서의 지위를 해지
  - 이는 에티오피아에 매우 중요한 조치로, 해당 법적 지정 해지로 인해 향후 에티오피아로 향하는 외국 원조 및 지원이 확대될 전망
- 한편, 인도주의 위기를 이유로 미국이 에티오피아에 대해 '22.1월부터 중단한 AGOA 혜택(무관세 혜택)이 재개될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 있음

### ▣ 중국은 '23~'27년 에티오피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지난 '23.1월에 에티오피아의 채무 중 일부를 탕감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중국의 수출입은행은 지난 3월에 14개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하여 6.2억 달러의 용자를 허용, 양국 간의 깊은 상업적 관계를 알 수 있음
  - \* 중국은 에티오피아의 대외 부채 중 약 137억 달러(대외 부채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는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에티오피아 청나일강 일대(나일강 상류)에 건설되고 있는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 건설로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는 이집트와 수단은 수자원 고갈 문제로 인한 갈등을 빚어옴

- '21.4월 이후 중단되었던 GERD의 운영 및 물 방류 관련 최종 합의를 도출하려 하였으나 에티오피아가 '23.9.10일 댐의 마지막 담수(댐의 물 채우기)를 발표하여 이집트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이집트는 물 공급의 80% 이상을 블루 나일강에 의존, GERD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있음
  - 에티오피아의 일방적인 담수는 '15년 이집트, 에티오피아, 수단이 체결한 원칙 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됨

## 다. 대외 채무 조정 노력

### ▣ '23.4월에 발간된 IMF의 Regional Economic Outlook(Sub-Saharan Africa)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대외 부채는 '22년 23.0%에서 '23년 18.2%, '24년에는 15.8%로 낮아질 전망

- 에티오피아는 주요 채권국과 G20 CF\* 하의 채무 구조조정 논의를 재개하고 IMF 또한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와 '24년 초 혹은 늦어도 '24년 하반기에는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됨

\* 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 beyond the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 에티오피아의 대외 채권자와의 관계는 티그라이 내전 등 정치적 불안 요소, 인도주의 위기 등으로 긴장 상태였으나 평화협정 체결 후 '23년 내 채무 구조조정이 재개될 것으로 보임

### ▣ 내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대외 자금 조달 제한 등의 요인은 국가 신용 등급 및 전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재 에티오피아의 국가 신용도는 Fitch CCC- 등급('22.12월)\*, S&P CCC 등급('23.3월), Moody's Caa3 등급('23.9월)으로 전망도 부정적이어서 단기 개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Substantial credit risk, very low margin for safety. Default is a real possibility

## 라. 외화 규제 지속

▣ 내전으로 인한 군비 확충, 고유가 등 영향으로 외화 고갈 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에티오피아는 '23년 수입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외화보유고가 1개월에 불과),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BE)는 외화 통제 지속 전망

- 에티오피아에서는 대내 송금액 및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에 대해 70%를 중앙은행에, 10%를 거래 은행에 즉시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22년)
  - '23년 하반기부터는 외화의 50%를 중앙은행에, 10%를 거래 은행에 납입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민간은행에 외화 부족 상태 지속됨
  - L/C 개설을 위한 외화 할당 신청 시 수개월~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며, L/C 대금 지급도 기한을 반년 이상 넘겨서 결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Ethiopia, NBE)는 '21.12월부터 외화 할당제를 시행하였으며 해당 조치는 현재('23.11월)도 유효함

### '21년 12월 시행 외화 할당 우선순위

- A. 1순위
  - I. 의약품: 약, 의약품 제조 투입재, 실험실 시약
  - II. 식용유 제조 투입재
  - III. LPG
- B. 2순위
  - I. 농업 투입재: 비료, 씨앗, 살충제 및 화학 물질
  - II. 제조업 투입재: 원재료 및 화학제품
- C. 3순위
  - I. 엔진 오일, 윤활유
  - II. 농업용 투입재 및 기계류(관개 펌프, 동물사료, 기계 및 장비, 트랙터, 수확기계와 예비부품, 잡종 동물)
  - III. 의약품(실험실 장비, 의료 장비 및 기구)
  - IV. 기계류, 장비, 부품 및 부대 용품 조달을 위한 제조산업의 요청
  - V. 유아용 영양식품
  - VI. 건설회사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US\$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기계 부품
  - VII. 교육 자료(연습장, 불펜, 연필, 인쇄용지)
  - VIII. 이익과 배당금 송금
  - IX. 외항사의 초과 판매분 이전
  - X.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분 판매 및 청산

자료: NBE

-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는 석유나 의약품 등 필수품 수입 수요 충족에도 부족, NBE는 비필수 품목 38개에 대해 무기한 수입 금지 조치(L/C 개설 금지) 발표 ('22.10.14일), 현재('23.11월)까지도 해당 조치가 적용 중
  - 비필수 품목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가구, 주스, 초콜릿, 향수, 비누 등
- NBE는 IMF의 시장환율체제 도입 촉구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통제하여 공식 환율은 비공식 환율과 괴리가 있음
  - 그러나 현지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 속도가 '24년에 더 가속화함에 따라 그 괴리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됨
  - 1USD당 연평균 환율은 '22년 52.01ETB, '23년 57.00ETB, '24년 71.62ETB 기록 전망
    - \* '23.11.1일 기준 1USD 공식 환율은 55.4ETB 내외, 비공식 환율은 100ETB를 넘음

## 마. 에티오피아의 BRICS 가입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23.8.24일)에서 이집트, 이란, 사우디,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UAE 등 총 6개국의 가입이 '24.1.1일부로 승인됨
  - 에티오피아는 BRICS 플러스에 대한 관심으로 '22년, '23년에 중국과 남아공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담 및 회의에 참여했고 '23년 초에는 브릭스 가입을 신청
- 에티오피아가 BRICS에 가입하게 되면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경제적 도전 극복, 수출 제조기지 확립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에티오피아 아비 총리는 브릭스 가입을 국가의 '위대한 순간'으로 평가하며 에티오피아의 커다란 외교적·지정학적·경제적 승리로 간주
- 한편, 에티오피아의 브릭스 가입을 아비 총리의 5년 집권 기간 중 가장 큰 외교적 승리로 평가되면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에티오피아의 BRICS 가입 자체는 투자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외부 개발 금융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함
  - 동시에 BRICS 및 새로운 개발은행의 회원이 되려면 상당한 재정적 약속이 수반되는데, 에티오피아의 외화 부족 및 막대한 부채 상황 의무의 부담을 감안할 때 에티오피아에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Chapter



---

**비즈니스  
환경분석**

---



## 1

##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내전 후 정치적 불안정 해결
- ※ 대외 채무의 구조조정 성사
- ※ 외환 규제 완화 여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 혹은 심화

## 가. 정치 환경

- '18.4월 정권을 잡은 아비(Abiy Ahmed) 총리는 기존의 집권 세력인 티그라이 세력과 결별하고 번영당을 창당해 국민 통합을 도모
  - 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내전이 발발해 국내외로부터 거센 압박에 직면
  - 대외적으로 서방 국가들은 내전의 평화적 협상과 타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에티오피아 국민 대다수는 티그라이의 탄압과 착취로 점철된 과거 역사가 있어 에티오피아 정부와 티그라이 간의 평화적 협상에 반대하는 입장
  - 평화적 협상 강행 시 아비 총리는 대중적 지지 기반 상실이라는 진퇴양난에 봉착할 수 있음
- '20.11월에 티그라이 반군인 오로모 해방군(Oromo Liberation Army, OLA)이 여타 반군 세력과 연합하여 남진
  -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점령하고 아비 정권 타도를 목표로 했으나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 전역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 내전 중 '21.6월 총선은 대체로 평화적·민주적으로 치러졌으며 집권 여당인 번영당이 연방의회 436석 중 410석을 차지하게 됨
  - 국민 재신임을 받은 아비 총리는 '21.10월에 새로운 내각 등 신정부를 출범,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
  - 대외관계 및 채무 개선, 평화협정 체결 이후 정권 안정화, 인플레이션 억제 등 다수의 당면 과제에 직면

- '22.3~8월간 일시적으로 정부군과 반군 간 휴전 상태 유지, 평화협상이 전개되는 듯 하였으나 '22.8.24일 내전이 재개됨
- 평화협상에 있어 양측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에티오피아 국민 다수는 평화협상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평화 타결은 쉽지 않아 결국 '22.11월이 되어서야 평화협정 체결
- 내전으로 인해 식료품값 폭등 및 인플레이션율이 30% 이상 기록
  - 민생고와 지역·인종 간 갈등 등으로 정치적 불안정 요소 지속
  - 민생경제 악화, 청년 실업자 증가, 내전으로 인한 대량 난민 등 사회 불만 세력 봉기 및 폭력 시위 우려가 병존
- 특히 내전으로 인해 분쟁지역에서 전기·통신 등 기본적 인프라마저 완전 차단되고 봉쇄, 인도적 지원이 끊기기도 해 이들 지역의 빠른 재건이 관건
  - 특히 티그라이 지역은 국가 전체 시멘트 생산량의 21%, 농업 생산량의 6%, 그 중 특히 참깨 생산량의 28.6%, 국가 전체 수출액의 8%를 차지
  - 지난 2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해 그 타격이 내전 이후에도 지속됨
- 저해요인으로 태생적인 이질성(80개 이상 언어 사용), 종족 기반 연방주의 제도의 한계, 종족 간 탄압과 착취의 역사 등이 있음
  - 역사적 원한과 인종 간 갈등의 골이 워낙 뿌리 깊어 쉽게 해소가 어렵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으로 전망됨

## 나. 경제 환경

▣ (개황) 평화협정 체결 후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개발과 경제 개혁이지만 물가 안정, 외환보유고 확충, 국제사회 자금 지원 재개가 안정적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외환보유고) IMF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외환보유고는 '22년 이후 0.7개월 분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진 후에도 급감할 전망

- '23년에는 수입 수요 충당 가능한 수준이 0.6개월, '24년에는 0.5개월로 급감하는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짐바브웨 다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적인 수입 수요 총당 가능한 수준은 4개월로, 나이지리아와 남아공을 제외하면 2.4~2.6개월 수준

**〈외환보유고의 수입 수요 총당 가능 기간 추이〉**

(단위: 개월)

2020	2021	2022	2023	2024
2.0	1.5	0.7	0.6	0.5

자료: IMF

**▣ (환율)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BE)은 IMF의 시장환율 도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율 관리를 통해 ETB 가치를 인위적으로 떠받치며 점진적으로 평가절하됨**

- IMF와의 협상 재개를 위해 평가절하 속도는 '23년 하반기부터 가속화될 전망
- 시장 가치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 암시장 환율은 107 이상, 공식 환율은 55.2 내외('23.10.2일)
  - ETB의 평균환율은 1달러당 '23년 57ETB, '24년 71.62ETB 기록 전망

**〈연평균 환율 추이〉**

(단위: ETB/USD)

2020	2021	2022	2023	2024
34.93	43.79	52.01	57.00	71.62

주: 2023년 및 2024년은 전망치

자료: EIU

**▣ (물가상승률) 유가 상승, 내전, 가뭄으로 인한 작황 피해, 식료품 가격 상승, 환율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

- '23년 물가상승률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짐바브웨 등 다음으로 최고치 기록 추정
- '24년에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 평가절하 속도가 가속화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29.6%를 기록 전망

- '25~'26년에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7년이 되어야 외부요인(석유파하락 등)이 완화되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IMF 전망	20.4	26.8	33.9	31.4	23.5
EIU 전망	20.3	26.8	33.9	32.8	29.6

자료: IMF, EIU

▣ (경제성장) 내전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22년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23년에는 6.0%, '24년에는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그러나 물가상승률, 외환 부족 및 정치적 불안정 지속이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14~'17년에 기록했던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은 '27년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명 (전망 시점)	2020	2021	2022	2023	2024
EIU ('23.7월)	6.1	5.6	5.3	6.0	6.2
IMF ('23.4월)	6.1	6.3	6.4	6.1	6.4

주: EIU, IMF는 에티오피아 회계 기준. 2023년 이후는 전망치

다. 산업 환경

▣ 에티오피아 주요 산업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 농업 부문은 역사적으로 에티오피아 경제의 원동력이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부문이 확장됨에 따라 서비스 부문에 자리를 내주게 됨
- 농업, 산업 및 서비스 분야는 '20/'21년 에티오피아 회계연도 GDP 중 각각 32.5%, 29.3%, 39.6% 차지(NBE)

- 특히 지난 10년 동안 산업 및 제조업 부문의 GDP 비중이 점차 증가
- 건설 산업에서는 도로, 철도, 댐, 산업단지 및 주택 개발이 산업 부문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해당 부문 성장에 절반 이상 기여
- 서비스 분야의 성장은 통신, 운송 서비스, 호텔 및 레스토랑 비즈니스, 도소매 거래 확장이 주도

**■ 농업 분야는 정부의 ‘10개년(’21~’30) 경제 개발 계획’에 따른 최우선 개발 부문으로 향후 10년 동안 연간 6.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농업은 에티오피아 경제의 원동력으로 전체 인구의 80%를 고용하고 GDP에 32% 기여하며 수출에서 약 90% 차지
  -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주로 커피(원두), 유지종자, 콩류, 살아있는 식물, 절화 등 가공되지 않은 상품
- 에티오피아의 개발 계획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활용한 거대 경작지 개발, 생산 시스템 현대화, 기술 활용 개선, 녹색 경제 등을 추진할 계획

**■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 대륙 최고 제조 허브 구축을 목표로 농업 가공 단지에 10억 달러를 투자, 수출과 무역 촉진 추진**

- 산업단지는 에티오피아 경제 개발 전략의 핵심 요소, 자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단지 개발공사가 17개 농업 성장 회랑(AIGC) 개발 예정
  - 9개 주에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1단계로 4개의 IAIP(Integrated Agro- Industrial Parks)가 건설 중이며 그 중 3개는 이미 운영
- IAIP는 무역 물류, 토지 접근, 통관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윈스톱 상점을 제공할 계획, 현재 3개의 IAIP (Humera(Tigray), Bure(Amhara), Yirgalem(SNNP))가 운영 중이며 Bulbula(Oromia)에 추가로 IAIP가 건설 중임

**■ 섬유·의류산업단지는 내전 전인 '19/'20년 6억 1,000만 달러의 수출 수익과 8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 에티오피아 내전 후 미국 정부는 에티오피아의 AGOA 특권을 '22.1월부터 중단, 재개 여부는 불투명
- 주목할 만한 산업단지에는 미국 소유의 의류 제조업체인 Philips Van Huesen (PVH)이 수출 시장용 셔츠와 기타 의류를 생산하는 Hawassa 산업단지, 그러나 PVH는 '22년 공장을 매각하고 에티오피아에서 운영을 중단

**▣ 신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은 내전이 안정화되고 기존 산업단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유예되고 있음**

- 저렴한 인건비와 유럽 무관세(EBA) 혜택을 앞세워 섬유·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 중이나 투자 성과 부진

에티오피아의 주요 산업공단 현황 ('23년 9월)

연번	명칭 (가동 연도)	소재	전체 면적 (HEC)	주요 업종	주요 투자국
1	Bole-Lemi I (2014)	A.A.	172	섬유, 의류, 피혁	인도, 중, 한
2	ICT Park (2015)	A.A.	279.9	ICT	중, 미, 독, 예
3	Hawassa (2016)	SNNPR	300	섬유, 의류	미, 인도, 중, 예
4	Kombolcha (2017)	암하라	75	섬유, 의류	미, 중, 한, 이탈리아
5	Mekelle (2017) (가동 중단)	티그라이	75	섬유, 의류	중, 인도, 영, 예
6	Adama (2018)	오로미아	365	기계, 의류, 봉제	일, 중, UAE, 인도, 예
7	Bahir Dar (2019)	암하라	75	섬유, 의류	중
8	Debrebirhan (2020)	암하라	1,000	봉제, 의류, 농가공	중, 스페인, 불
9	Dire Dawa (2020)	디레다와	150	섬유, 봉제, 피혁	중, 스리랑카, 이탈리아, 인도, 예
10	Jimma (2020)	오로미아	75	섬유, 의류, 농가공	중
11	Bole-Lemi II (2021)	A.A.	181	섬유, 봉제, 피혁	중
12	Kilinto (2021)	A.A.	279.9	제약	중, 인도, 영, 이집트, 예
13	Semera (2021)	아파르	50	섬유, 봉제, 피혁, 화학	-

자료: 에티오피아 산업단지개발공사(IPDC: Industrial Park Development Corp. of Ethiopia)

## 라. 정책·규제 환경

▣ 정부는 '20년에 완료된 제2차 경제개발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II, '16~'20)을 대체할 '자생적 경제개혁 아젠다('19)와 '10개년('21~'30) 개발 계획('20)을 발표하여 지속 추진 예상

〈10개년(2021~2030) 개발 계획 주요 내용〉

6대 목표	10대 전략	6대 우선 부문
① 시장경제 구현, 민간 참여 확대	① 질적 경제 성장 및 공동 번영	① 일자리 창출 위한 다양한 자원 확대
②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② 경제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②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 금융 부문 개발
③ 경쟁력 강화 통한 경제구조 개편	③ 기술 역량 제고 및 디지털 경제 구현	③ 인구배당효과 활용
④ 사회보장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④ 지속 가능한 개발 자원 확보	④ 양질의 효율적 인프라 개발
⑤ 공무원 역량 강화	⑤ 민간 부문 주도 경제 성장	⑤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⑥ 평화/정의/법치 강화 위한 제도 강화	⑥ 회복력 있는 녹색 경제 구현	⑥ 평화, 정의, 포용적 제도 구축
	⑦ 경제사회 공공제도 개혁	
	⑧ 성평등 및 사회적 포용	
	⑨ 효율적 사법 및 행정 접근성 강화	
	⑩ 지역 경제 통합 및 평화 구축	

자료: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

- (ESG) 에티오피아는 세계 최빈국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당면 과제여서 ESG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10개년 개발 계획 등을 통해 일부는 개발 목표에 반영되었으나, 관련 정책이나 실행 계획, 규제 등이 아직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
  - 향후 중장기적으로 투자·비즈니스 활동에 대해 에티오피아도 ESG 관련 원칙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해 나갈 가능성에 대해 미리 대비 필요

▣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22개국과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발효 중, 영국·인도·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한국 등 19개국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체결

### 주요 협정 체결국 현황 ('23년 9월)

- ※ 투자보장협정 (발효국) : 알제리, 오스트리아, 중국,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수단, 스웨덴, 스위스, 튀니지, 튀르키예, 예멘, 아랍에미리트
- ※ 이중과세방지협약 : 이탈리아, 쿠웨이트, 루마니아, 러시아, 튀니지, 예멘, 이스라엘, 남아공, 수단, 영국, 싱가포르, 중국, 인도, 네덜란드, 사이프러스, 한국 등

주: 한국과의 투자보장협정은 현재 에티오피아 사정으로 문안 협상 지연 중

## ▣ 내전으로 인한 외화 부족 심화로 외환 규제는 지속될 전망

- 5,000달러 이상 수입 건은 L/C 거래가 의무이나 품목에 따라 9~10개월 이상 소요, 은행의 외화 부족으로 L/C 부도 기한을 1년 가까이 넘겨서 결제
  - '22년부터 시행해온 외환관리지침을 통해 벌어드린 외환의 70%를 NBE에서 강제 환수, 민간은행은 10% 환수하여 민간은행 내 외환 부족 사태 심화
- 외화 할당제 순위는 수시로 조정될 수 있으나 제도 자체는 유지 전망

- ※ 동아프리카 국가 중 차세대 유망 시장으로 거론
- ※ 미국, 유럽 등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전진기지
- ※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한국과 우호 관계 지속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교역구조, ODA 중점국, 무역, 투자, 개발 협력 등에서 시너지 창출이 기대

## 가. 시장 특성

### ▣ 1.24억 명 이상의 인구, 빠른 성장, 풍부한 미개발 자원, 동아프리카의 전략적 요충지 등 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긍정적 요인 다수

- (내수시장) 1인당 GDP는 1,000달러 이하이나 실질 구매력이 향상되고 소비 지향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경제성장) 중장기 정책에 따라 투자 유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화 촉진으로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부존자원) 농토, 금 등 주요 광종을 수출하고 있으며 유전을 발견하는 등 미개발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 무역, 투자 진출, 개발 협력 등이 유망하며 향후 범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음

- (수출) 중국산 저가저품질 제품에 질린 소비자들이 품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산 **인센드위치\*** 전략 유효했음
  - \* 중국 대비 가격은 높고 미국이나 EU 대비 가격은 낮으면서 품질은 우수
- (개발 협력) 한국전에 참전한 나라로서 초고속 성장의 롤 모델인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전수받기를 기대하고 있음
  - EDCF 통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및 공공 시스템 구축 등 지원 중
  - ODA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건위생, 교육훈련, 낙후지역 대상 지원 강화

- KSP, EIPP를 통해 우리나라 개발 경험 전수 기회 확대
  - \* 환경, 에너지, 농업, 전자정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자체 추진하는 지원 사업 수요도 다대

- (투자) 섬유·봉제·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인건비와 EU 무관세 특혜(EBA)를 활용해 새로운 수출 전진기지 역할 기대
  - 낮은 생산성, 높은 물류비 등 단점이 있으나 인건비가 동남아 대비 1/3 수준이라는 점이 매력적인 요건

## 나. 교역

▣ (총평) 에티오피아는 매년 100억 달러 내외의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출 증대에 힘쓰는 한편 외환이 부족해 강력한 수입 통제책 시행

- (수출) '22년 주력상품 수출 호조로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3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3.9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8% 감소
- (수입) '22년 수입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144억 달러로 5년 연속 증가하였으나, '23.9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소폭(약 1.62%) 감소
- (무역수지)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약 100억 달러 규모 기록

〈최근 5년간 에티오피아의 상품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9월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667	2,760	3,324	3,573	2,563	-9.68%
수입	13,442	12,134	13,508	14,423	10,937	-1.62%
수지	-10,775	-9,374	-10,184	-10,850	-8,374	1.14%

자료: GTA

▣ (주요 교역국) '23.9월 말 기준 중국,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미국 등과의 교역 비중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교역 비중은 1.5%로 16위 기록

### 〈에티오피아의 국가별 교역 의존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교역액				교역 비중	증감률
		2020	2021	2022	2023.9월	'23.9월	전년 동기 대비
1	중국	3,637	3,621	4,201	3,230	23.92	4.70
2	쿠웨이트	603	679	357	1,359	10.07	298.26
3	사우디	557	602	808	1,211	8.97	90.32
4	인도	1,261	2,300	2,207	1,159	8.58	-30.45
5	미국	872	1,298	1,341	819	6.07	-19.56
7	UAE	784	674	727	566	4.19	-4.03
6	모로코	309	397	702	543	4.02	-11.37
8	이집트	208	241	569	333	2.47	-36.10
9	네덜란드	403	488	618	326	2.41	-34.74
10	튀르키예	659	699	767	316	2.34	-47.10
16	한국	225	311	280	203	1.5	-11.33
	세계	14,894	16,832	13,499	12,458	100	-3.28

자료: GTA

-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쿠웨이트, 인도, 사우디, 모로코 등이며, 對한국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8% 감소하여 '23.9월 말 기준 19위를 기록(전년도와 동일)  
- 중국은 일대일로 및 오랜 경제 협력으로 압도적 1위 차지
- 에티오피아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UAE, 네덜란드, 사우디, 미국 등이며, 對한국 수출이 '23.9월 말 기준 3.7% 감소하여 수출대상국 8위를 기록(전년도 11위)

#### 〈'23.9월 누계 에티오피아의 10대 수출입 대상국〉

[에티오피아의 10대 수입대상국]

[에티오피아의 10대 수출대상국]

순위	국가명	수입액 (백만 달러)	비중	증감률(%)	순위	국가명	수출액 (백만 달러)	비중	증감률(%)
1	중국	3,150	28.80	5.87	1	UAE	274	10.67	54.90
2	쿠웨이트	1,351	12.35	302.31	2	네덜란드	273	10.64	-17.23
3	인도	1,055	9.65	-34.19	3	사우디	258	10.06	9.66
4	사우디	953	8.71	137.60	4	미국	240	9.38	-21.44
5	미국	579	5.30	-18.75	5	소말리아	115	4.47	-51.21
6	모로코	541	4.95	-11.44	6	독일	111	4.33	-48.99
7	이집트	327	2.99	-37.08	7	인도	104	4.04	65.47
8	UAE	292	2.67	-29.22	8	한국	99	3.88	-3.71
9	튀르키예	282	2.57	-51.28	9	일본	96	3.75	-18.38
10	인도네시아	194	1.77	32.19	10	지부티	90	3.51	-3.81
19	한국	104	0.95	-17.58	12	중국	80	3.11	-27.96
	총수입	10,937	100	-1.62		총수출	2,563	100	-9.68

자료: GTA

▣ (품목별) '23.9월 말 기준 주요 수입 품목인 원유 수입이 급증한 데 비해, 주력 수출 품목인 커피의 수출은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주력 수출 품목인 커피 수출은 '22년에 27% 증가한 데 비해 '23.9월 말 기준 약 20% 감소하는 등 농산물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채소·채유용 종자는 내전·가뭄 등 작황의 영향으로 '22년에는 수출 감소 하였으나 '23.9월 말 기준 다시 전년 대비 증가 추세

〈'23.9월 누계 에티오피아의 10대 수출입 품목〉

[에티오피아의 10대 수입 품목]

[에티오피아의 10대 수출 품목]

HS code	품목명	수입금액 (백만 달러)	증감률 (%)	HS code	품목명	수출금액 (백만 달러)	증감률 (%)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2,468	172.33	09	커피, 향신료	1,012	-20.69
84	보일러, 기계류	1,041	-4.60	07	채소	537	17.60
31	비료	951	-20.70	06	산수목, 꽃	406	-16.66
85	전기기계	834	-6.49	12	채유용 종자	329	44.07
87	자동차	631	-14.56	02	식용 육류	51	-37.69
15	동식물성 유지	483	-55.93	61	의류(편물제)	49	-19.0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80	-5.62	62	의류(편물제 외)	28	-34.14
30	의료용품	478	-21.97	08	과실, 견과류	17	1.04
72	철강	375	-4.12	19	시리얼	17	30.96
10	곡물	359	-53.44	41	원피, 가죽	15	-27.87
38	화학제품	234	19.65	01	동물	13	-47.63

자료: GTA

다. 투자

▣ 아비 총리는 정국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20년 이후부터 투자법 개정, 통신·항공 등 기존 독점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산업단지 조성으로 FDI 유치 노력 중

- 정부는 투자자금 대출 지원(50~70%), 5~10년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 수출기업 우대 등의 인센티브 제공

- 그러나 내전 등으로 외국인이 체감하는 투자 환경은 오히려 악화
- 높은 물류비, 낮은 생산성, 중앙지방 정부 간 의견 조율의 어려움, 외화 부족, 정정 불안 등 고질적 투자 저해요인 상존
- 제조업 기반의 부재로 현지에서의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울 뿐 아니라 외화가 부족해 원부자재의 수입이 원활치 않음
  - 현지의 원부자재로 생산한 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투자 사업 모델

**▣ 투자 프로젝트는 건수 기준으로 '22년 193건으로 선방, '23.8월 누계 역시 190건을 기록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전의 악영향을 확인할 수 있음**

- '23년 들어 이행 전 단계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 이행 단계 프로젝트는 9건 ('22년) →4건('23년)으로 감소, 가동 단계 프로젝트는 13건선 유지
  - 투자액은 290억 ETB('21년), 560억 ETB('22년) 2억 ETB('23.8월)로 급감

**〈최근 3년간 에티오피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단위: 건, 백만 ETB)

구분	2020	2021	2022	2023.8.23 기준
프로젝트	159	173	193	190
- 이행 전	65	56	112	173
- 이행	33	26	9	4
- 가동	61	91	72	13
투자액	4,086	29,011	56,441	227

자료: EIC

- (국가별) 최근 3년간 투자 실적에서는 중국이 투자 건수 및 금액 면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인도(합작 포함), 미국(합작 포함), 네덜란드(합작 포함)가 뒤를 이음
- (분야별) 제조업 분야가 금액 및 건수 모두 1위이며 건수 기준으로 부동산업, 농업, 기타, 건설업, 호텔업 등이 뒤를 이음
- (지역별) 아디스아바바 지역이 금액과 건수 기준 1위, 건수 기준으로 오로미아, 암하라, SNNPR, 아파르가 뒤를 이음
  - 전통적으로 상위권이었던 티그라이 지역은 내전으로 순위에서 밀려남

〈에티오피아의 국가별·분야별·지역별 투자 현황 ('20~'23.8.24)〉

(단위: 억 ETB, 괄호는 비중)

순위	국가별			순위	분야별			순위	지역별		
	국가명	금액	건수*		분야	금액	건수*		지역명	금액	건수*
1	중국	219(24.5%)	113	1	제조업	532.6	53	1	아디스아바바	835	154
2	수단	79.34(8.8%)	1	2	농업	316.7	142	2	오로미아	40.7	70
3	네덜란드	19.9(2.2%)	8	3	보건	25.4	14	3	암하라	10	5
4	인도	14.6(1.6%)	11	4	전력	8.6	11	4	SNNPR	5.3	3
5	미국	0.7(0.8%)	6	5	부동산	4.4	3	5	디레다와	4.7	2
	합계	897(100%)	237		합계	897	237		합계	897	237

주: 건수는 가동 프로젝트 기준임  
 자료: EIC

라. ODA

▣ 에티오피아의 ODA가 중앙정부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ODA 의존도가 높음

〈최근 5년간 에티오피아의 ODA 동향〉

(단위: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순 ODA 수령액	41.2	49.4	46.8	53	39.8
ODA/중앙정부 지출 비중	44.9	54.2	50.2	58.6	n/a*

자료: World Bank ('23.11.1 기준 World Bank 통계에 미반영됨)

▣ 에티오피아는 '21/'22 회기에 19개 원조 기관으로부터 95개 프로젝트에 대해 27억 달러의 약정액을 확보, 이 중 신규 프로젝트 57개 포함

- 이 중 21억 달러(77.7%)는 무상원조, 6.33억 달러(22.6%)는 차관
- 다자기관의 지원액은 20억 달러로 73.4%, 양자기관 지원액은 7억 4,500만 달러로 26.6% 차지

### 〈에티오피아 상위 10대 개발 파트너('21/'22 회기)〉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총 집행액 기준	무상원조 기준
1	IDA (8,723.4)	IDA (1,206.42)
2	USAID (1,041.3)	FCDO (168.04)
3	FCDO (1,538.9)	USAID (135.14)
4	ADB (1,362.2)	독일 (89.99)
5	EU (573.6)	UNICEF (68.74)
6	독일 (651.2)	중국 (65.81)
7	UNICEF (480.8)	덴마크 (46.80 )
8	중국 (452.9)	EU (46.66)
9	IMF (411.0)	JICA (35.81)
10	네덜란드 (232.8)	WFP (25.86)

자료: 에티오피아 재무부

### ▣ 에티오피아에서 '21/'22 회기 동안 시행된 분야별 프로젝트에서 농업은 38.5%, 보건은 24.8% 차지

- '21/'22 회기 중 가장 규모가 컸던 프로젝트는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Food Systems Resilience Program(FSRP)'으로 예산 규모가 6억 달러

### 〈에티오피아 섹터별 평균 프로젝트 규모 ('21/'22회기)〉

(단위: 백만 달러)

섹터	평균 프로젝트 규모
농업	762.01
전력 생산 및 공급	374.75
운송 및 창고	353.59
상하수도	157.71
교육	142.51
은행 및 금융 서비스	56.84
정부 및 시민사회	51.80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47.46
무역정책 및 규제	31.06

섹터	평균 프로젝트 규모
긴급 지원 및 재건	17.50
임업	10.24
인구 정책 및 생식 보건	9.59
건설	9.37
통신	1.60
광업	1.33
수산업	0.94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0.37

자료: 에티오피아 재무부

## ▣ 한국은 '22년 기준 ODA로 총 13개 기관이 84개 사업에 총 1억 3,000만 달러를 지원

### 〈'22년 한국 기관별 對에티오피아 ODA 지원 실적〉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사업수	약정액	총지출액
전체	84	39.51	129.98
경찰청	1	0.02	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0.00	0.15
교육부	1	2.0	0.00
국민권익위원회	1	0.00	0.00
농림축산식품부	5	11.0	11.30
농촌진흥청	2	0.63	0.36
보건복지부	4	1.99	1.76
산림청	1	0.77	0.77
산업통상자원부	4	0.54	4.77
여성가족부	1	0.01	0.01
지방자치단체(강원도)	1	0.06	0.06
한국국제협력단(KOICA)	51	22.48	21.95
한국수출입은행(EDCF)	11	0.01	88.84

자료: ODA Korea

- ※ EU,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선진 시장
- ※ 가치 지향의 소비자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장
- ※ 에너지 가격 안정세로 '23년 EU 대외 무역 적자폭 완화세이나 EU FDI 투자액은 '19년 이후 저조한 흐름 지속 중
- ※ '23.8월 누계 기준 對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4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경기 둔화에도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선전

## 가. 교역

▣ (총괄) 한-에티오피아 간 FTA는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10대 수출대상국이자 15대 수입대상국, 교역규모로는 15대 교역대상국으로 에티오피아의 총 교역의 1.44%를 차지

▣ (무역수지) 한국은 에티오피아에 대해 매년 약 5,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하였으나 '22년에 처음으로 무역적자 기록

- '22년 들어 에티오피아의 외화 부족이 심화되면서 수입 규제가 시작되자 對에티오피아 수출은 55% 급감하고 수입은 커피를 중심으로 59% 급증한 결과 '23.9월 말 기준 무역적자가 2,100만 달러까지 증가

▣ (교역 현황) '23.9월 말 기준 한국의 對에티오피아 수출은 29.7% 증가한 반면, 수입은 9.4% 감소하여 무역수지 적자폭도 감소

- 전년도 수출이 부진했던 의약품, 기타석유화학제품 및 정밀화학원료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 중
- 수입은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커피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하여 전체 수입도 12.6% 감소

### 〈한-에티오피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9월)
수 출	105 (-7.9%)	92 (-12.1%)	111 (20.5%)	140 (26.2%)	63 (-55.1%)	61 (29.7%)
수 입	54 (-12.1%)	57 (5.1%)	65 (13.2%)	81 (24.4%)	127 (58.1%)	82 (-9.4%)
수 지	50 (-3.0%)	35 (-23.2%)	46 (32.3%)	59 (28.3%)	-65 (10.9%)	-21 (-53%)

자료: 한국무역협회

#### ▣ (수출 품목) 한국의 對에티오피아 주요 수출 품목은 의약품,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등

- '22년 들어 내전으로 ODA 지원에 의한 무상 수출 감소, 에티오피아의 외화 부족으로 인해 주요 품목 수출이 전반적으로 대폭 감소
- 그러나 '23.9월 말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3.9월 한-에티오피아 주요 수출 품목 (MTI 4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순위	MTI 4단위	품목	2020	2021	2022	2023 (1~9월)	증감률
총계			111,239	140,337	62,988	61,062	29.7
1	2262	의약품	10,592	22,628	11,683	16,941	80.1
2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9,934	15,134	4,015	6,585	100.8
3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6,130	6,087	5,383	5,210	76.0
6	2140	합성수지	20,314	21,577	11,170	4,541	-41.6
5	7251	건설중장비	15,188	21,030	7,507	4,248	-42.4
4	0111	곡류	2	4,419	2,470	3,926	58.9
7	8144	현금자동처리기	1,818	722	1,886	2,527	447.1
8	2150	합성고무	1,028	2,528	2,223	1,976	50.4
9	6900	기타철강금속제품	804	1,025	1,241	1,636	60.3
10	8147	의료용전자기기	492	231	99	912	-5.8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입 품목) 한국의 **에티오피아 주요 수입 품목은 커피(수입 비중 90% 이상), 화초류, 참깨, 의류, 가죽제품 등('23년 참깨 수입은 전무)**

- 에티오피아산 커피 수입 규모가 '22년에 최초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23. 9월 말 기준 수입이 12.8% 감소하여 전체 수입이 9.4% 감소

〈'23.9월 한-에티오피아 주요 수입 품목 (MTI 4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순위	MTI 4단위	품목	2020	2021	2022	2023 (1~9월)	증감률
총계			64,800	80,600	127,436	82,177	-9.4
1	0151	커피류	59,387	75,645	116,153	73,375	-12.8
2	4412	직물제의류	584	177	4,545	4,656	115.4
3	0122	화초류	1,239	1,669	2,662	2,209	40.5
4	4411	편직제의류	230	124	1,075	1,569	411.6
5	3319	기타가죽	80	81	102	98	-3.5
6	0233	동물성한약재	16	16	139	73	-47.2
7	5113	가방	7	38	82	61	-9.3
8	0321	수목류	48	66	53	50	60.7
9	8151	계축기	0	0	0	18	0.0
10	0239	기타축산물부산물	342	4	206	17	-90.8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 성공 사례

- '21년도 에티오피아 전체 수출액 기준 약 860만 달러로 대기업, ODA 무상 수출을 제외하면 수출기업 중 당당히 전체 1위를 기록한 A사는 20여 년 전 인도계 에이전트 통해 석유화학제품 등을 공급하며 최초로 에티오피아 시장에 진출
  - 그 당시에는 에티오피아 내 시장 정보가 거의 없었음에도 기술 영업을 하는 양질의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데 성공, 이를 통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납품을 시작
  - 시장 개척 초기 당시는 경쟁사가 거의 없었기에,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 15개 사 이상의 거래선에 정기적으로 납품하며 시장 내 입지를 다져옴
    - 현재는 다수 경쟁사의 참여로 시장 내 경쟁이 격화되었으나, 시장 현황과 제품 가격 변화 추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속적인 성공 신화를 써오고 있음
- 에티오피아는 급격한 산업 성장기를 겪으며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한 원부자재에 대한 수요가 큼에도 외화가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편임
  - 또한 거래가 되더라도 L/C 개설 및 결제 지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함
  - 이에 더해 원자재 가격과 해상 운송료 상승, 선사 일정 잡기의 어려움 등 적기 공급 역시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오랜 거래를 통해 신용을 쌓아온 바이어라 할지라도 코로나 이후에는 해외 출장마저 어려워 A사는 직접 관리에 한계를 체감
  - 이에 A사는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의 지사화 서비스를 통해 주요 원료 Maker의 수급 변동 상황 등을 체크하며 기존 거래선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옴
  - 또한 미수금 발생 시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이 개설 은행에 무역관(대사관 상무관실)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은행 고위인사와 면담하는 등 현장 대응형 미수금 대책 시스템을 구축, 유지해 오고 있음
- 한 달 이상 지연된 미수금 건은 결제 전까지 A사 내부 유동자금으로 자체 대응하되 동시에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은행 관계자와 수시로 현장에서 해결 노력 중
  - 미수금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동 바이어와 추가 거래 논의는 분기별로 지속해 나가고 있음
  - 더불어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을 통해 급변하는 정세와 제도, 규제 등을 지속 파악하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코자 반드시 수출보험을 들어 리스크를 관리 중
- 에티오피아 내 경쟁업체가 진출하기 전부터 시장을 선점하여 어려운 시장에서 성공 신화를 이룩해낸 A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KOTRA 무역관을 든든한 현장 파트너로 삼아 신규 제품으로 신규 거래선 발굴을 추진, 동시에 동아프리카 주변국으로도 수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나. 투자 진출

### ▣ 한국은 '96년 對에티오피아 투자 최초 신고 이래 21개 법인을 설립('23.6월 누계 기준)하고 6,500만 달러 투자

- 한국 기업들은 에티오피아의 저렴한 인건비에 주목하여 '14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었고 '18년 1,000만 달러 투자
  - 이후 코로나 및 내전으로 투자환경이 악화하여 투자 감소 및 투자 회수가 이어졌으나 '23년에는 회복 추세
  - '96년 경남기업이 최초 진출 이래 근래에는 이코스(철강), 신티에스(봉제), 영원무역(봉제), BM(봉제)의 투자 진출이 눈에 띈
  - 그러나 진출기업 다수가 지난 3년간 코로나 및 내전으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진출기업 여건은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외화의 만성적 부족 및 반출 불가로 여전히 녹록지 않음

### 〈한국의 對에티오피아 투자 실적〉

(단위: 개 사, 천 달러, 건수)

연도	1996~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월	누계
신규법인수	18	1	2	0	0	0	0	21
투자금액	28,694	10,065	6,945	4,997	4,782	3,879	5,326	64,688
신고건수	187	50	58	21	21	18	16	371
신고금액	46,489	7,558	11,974	6,102	4,493	4,399	5,536	86,551
송금횟수	193	61	61	30	27	25	25	422
회수건수	2	1	4	8	7	3	0	25
회수금액	155	500	1	19	2,002	377	0	3,05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 (업종별) 동남아 인건비 상승, AGOA·EBA 무관세 혜택 등을 고려한 의류·신발·가방의 봉제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주류

\* 내전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로 '22.1월부터 AGOA 혜택은 중단된 상태

-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 봉제업 등 제조업이 4,500만 달러(71%)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제조업은 의류(신티에스, 영원무역, 세양물산), 철강(이코스)이 대표적

### 〈한국의 업종별·주체별 對에티오피아 투자 실적〉

(단위: 천 달러, 비중, 개 사)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	누계
투자금액	46,119(72%)	10,373(16%)	5,330(8%)	2,867(4%)	64,689
신규법인수	12(57%)	1(5%)	3(14%)	5(24%)	2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 투자 고려 시 잦은 현장 점검, 현지 파트너, KOTRA를 통한 현지 실정 파악 필수

- 수출 제조 투자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높은 물류비, 관세·통관 이슈, 낮은 노동생산성, 관료주의, 전기·수도 등 열악한 기본 인프라, 정책과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성 부족 등 다수
  - 예상치 못한 상황과 높은 간접비용으로 초기 투자계획 수립 시 투자 수익률(ROI)과 실제 ROI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한국기업 전용공단은 중장기적으로 안전한 투자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중국은 중국기업 전용공단을 중심으로 에티오피아에 활발히 진출, 이에 비해 한국은 정상 간 논의(19.8월) 후 코로나, 내전 등 투자환경 악화로 진행 지연

### 투자 실패 사례

- 수영복 등 스포츠 의류 제조·수출을 위하여 에티오피아에 진출한 B사는 코로나로 인한 제품 수요 감소 탓에 해외 오더 급감에 직면, '21년 철수하기에 이룸
  - 이는 코로나라는 예상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생각보다 어려운 현지의 조업 여건과 악화되는 투자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함
- 가방 등 피혁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던 C사는 내전으로 인하여 공장에 약탈 등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AGOA 혜택 중단으로 인하여 '22년 들어 신규 오더가 없게 되자 철수를 결정하게 됨
  - 동 사례는 내전과 같은 외부 변수 및 AGOA 혜택 중단과 같은 정책·규제 환경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며, 예측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개발 도상국에서의 사업이 갖는 리스크를 여실히 보여줌

## 다. 협력 유망 분야

###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산업 ODA) KIAT 주관 산업 ODA 프로젝트 3건이 에티오피아에서 진행 중\*이며 후속사업 발굴 필요, 동 프로젝트 연계 국내기업의 신시장 개척 가능
  - \* ①에티오피아 섬유테크노파크 조성(18~'23, 84억 원), ②에티오피아 마을 상수도 인프라 구축('20~'23, 62억 원), ③에티오피아 농기계 R&D센터 조성('21~'26, 179억 원)
- (개발 협력) KSP, EIPP를 통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에티오피아에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을 전수, 양국 산업 간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
- (투자 협력) 투자보장협정 체결, 양국 간 표준협력 등 민간 교류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 \* 양국 정상회담('19.8.26일)에서 공감대 형성

###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주요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입수하여 국내기업에 전파

- 고레-테피(Gore-Tepi) 고속도로, 남부 송전망 건설, 지하수 활용 관개수로 개발 등 대단위 사업에 우리 기업 투입
- EDCF가 간선 급행 버스체계(BRT), 토지·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 등 한국형 공공 관리 시스템을 지원
- (정부조달 프로젝트) 우리 기업에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적기에 정부조달 프로젝트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
  - 조달 품목 : 비료, 현금 자동 처리기, 의약품, 농기계, 화학원료
- (정부 시책 품목) 달러화 할당 우선 품목 등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분야에 진출
  - 유망 품목 : 화학원료, 플라스틱 원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업(전기자동차, 가전 등) 등이 장기적으로 유망

Chapter



# 진출전략



※ 단기적으로는 외화 할당 우선 품목을 위주로 내수시장 공략  
 ※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진출을 통해 아프리카, 미국, 유럽 시장의 교두보로 활용

### 1 PEST 분석

<b>P</b> 정치정책 (Polit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전 평화협정 후 경제활동 재개 및 정치 안정이 최우선 목표</li> <li>• 정부군-민병대 간 갈등 정국 불안정 지속</li> <li>• 내전 이후 외국 자금 유입이 중단되어 국가 재정이 악화</li> <li>• 부정부패, 언론탄압 등 여전</li> </ul>
<b>E</b> 경제 (Econo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 지역에서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li> <li>•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기계화로 농업생산성 향상</li> <li>• 현지화 평가절하 속도 가속화, 인플레이션율 30% 지속</li> <li>• 커피·농산물에 치우친 수출 품목 구조</li> </ul>
<b>S</b> 사회문화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24억 명의 시장으로서 잠재성 보유</li> <li>•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 지속</li> <li>• 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학력 저하, 숙련된 인력 부족</li> <li>• 최빈국으로 소비재 등 구매력 저조</li> </ul>
<b>T</b> 기술 (Technolog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차원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2025 추진</li> <li>• 휴대폰 가입자 증가 추세</li> <li>• 경제성장을 선도할 만한 미래 기술 미보유, 혁신 역량 제한</li> <li>• 인터넷 가입자 저조(인구의 27.6%만 인터넷 접근 가능)</li> </ul>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에티오피아 시장 SWOT 분석〉

<b>강 점(Strength)</b>	<b>약 점(Weakness)</b>
<p><b>내부 환경: 해당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강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혈맹으로 인한 우호적 국가 이미지</li> <li>• 자본 및 기술적 우위 보유</li> <li>• 한국에 대한 인지도 확산</li> </ul>	<p><b>내부 환경: 해당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약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에 비하여 인지도 저조</li> <li>• 중국 및 인도산 대비 가격경쟁력 열위</li> <li>• 진출 성공 사례 저조</li> </ul>
<b>기 회(Opportunity)</b>	<b>위 험(Threat)</b>
<p><b>외부 환경: 해당 지역에서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만한 요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활용 가능</li> <li>• 인구 1억이 넘는 큰 내수시장</li> <li>• AfCFTA, EBA 등을 활용한 시장 확대</li> </ul>	<p><b>외부 환경: 해당 지역에서 우리 기업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요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투명한 행정(세무, 관세) 시스템 애로</li> <li>• 외환 부족에 따른 결제 대금 지연</li> <li>• 정치적 불안정 지속</li> </ul>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화학원료 등 현지 유망 품목 공략</li> <li>•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유망 사업 모델 선점 진출</li> </ul>	무주공산 시장 선점
ST 전략 (차별화 전략-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원조 연계형 사업 진출(EDCF, IBS 등)</li> <li>• 공공조달 시장 참여</li> </ul>	개발협력사업 및 ODA 연계
WO 전략 (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를 활용한 현지 진출(중장기)</li> <li>• 1억 인구 기반 BOP 시장 공략</li> </ul>	전략적 교두보 구축
WT 전략 (방어/철수-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 우선 할당 품목 중점 공략</li> <li>• 수입대체품 육성 등 현지 정부 시책에 부응</li> </ul>	현지 정책 부응형 시장 공략

## 2024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화학원료, 합성수지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인도에 비해 차별화된 가격 및 품질 포지셔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고가 마켓을 겨냥, 미국·유럽산과의 경쟁 프리미엄 구축</li> </ul> </li> </ol>
현금 자동 처리기, 금고, 비료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통한 장기간 안정적인 수출 기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험이 있는 에이전트와 네트워크 사전 구축 필요</li> </ul> </li> </ol>
의약품, 의료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관련 준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DA 등 인증 사전 취득, EFDA 제품 등록 위한 에이전트 선정</li> </ul> </li> </ol>
건설, 전력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티오피아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 → IBS, KSP, EIPP, EDCF 등 연계</li> </ul> </li> </ol>
농기계, 섬유기계, 건설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 ODA 프로젝트 연계한 신시장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기계·섬유 관련 산업 ODA 연계 해당 품목의 신시장 개척</li> </ul> </li> </ol>
섬유, 피혁, 봉제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집약적 산업의 특화 산업단지 투자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저한 사전 시장조사 및 사업 파트너 발굴 필요</li> </ul> </li> </ol>
다목적 플랫폼	<p>중장기적으로 무역, 투자 진출, 개발 협력 등 아프리카의 다목적 진출 교두보로 활용</p>

### 3-1. 차별화된 가격 및 품질 포지셔닝으로 시장 침투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꾸준한 수입 수요에도 불구하고, 외화 규제에 의해 전반적 품목에 있어 공급 부족 상태
- 중국·인도 등 저가 제품과의 가격 경쟁 치열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외화 부족 및 수입 규제에 전반적으로 제품의 공급 부족 만연
- 고가품은 주로 유럽·미국 등지에서, 저가품은 주로 중국·인도 등에서 수입
  - 큰 빈부 격차로 고가품과 저가품이 동시에 팔리고 있음
  - 한국 제품에 대한 호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 부족
  - 중국·인도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 떨어져 품질과 납기 등으로 승부 필요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미국·유럽 제품 대비 가격 저렴, 중국·인도 제품 대비 품질 우수한 점 어필, 틈새시장 개척
- (유망 품목) 플라스틱 원료,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등
  - 외화 할당 우선 품목군으로 L/C 개설, 외화 할당이 용이

## 3-2.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통한 장기간 안정적인 수출 기회 확보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에티오피아는 정부 주도의 시장으로 공공 분야의 시장 규모가 절대적으로 큼
- MDB 지원 조달 프로젝트 발주가 유망하며, 납품 실적이 축적되면 추가 수주도 기대 가능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에티오피아는 정부조달, 공공 인프라 사업 등 공공 분야가 주도하는 시장
  - 정책적으로 민간 기업, 민간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나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미미
- 정부기관 추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조달 시 외화 우선 배정 가능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주요 정부 부처의 입찰 프로젝트 참가를 위해 현지 에이전트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전에 정보 입수
  - 농업부는 비료 등 연간 20억 달러 규모 내외를 입찰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상업 은행 등 금고, 현금 자동 처리기를 입찰 통해 조달 중\*
  - \* 정부 기관 조달 시 CBE(Commercial Bank of Ethiopia)는 Confirmed L/C 허용
- (유망 품목) 현금 자동 처리기, 금고, 비료 등
  - 해당 품목은 정부 기관에서 추진하는 입찰 프로젝트로 주로 조달되므로, 외화 할당이 용이

### 3-3. 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관련 준비 철저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우리나라 수출 유망 품목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현지의 주요 수입 품목임
- 의약품·의료기기는 외화 우선 할당 품목으로 L/C 개설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현지 시장 판매를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사전에 EFDA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의약품·의료기기는 외화 우선 할당 품목으로, 주로 입찰을 통해 수입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의약품·의료기기는 반드시 에이전트를 통하여 EFDA에 등록한 후 승인을 받아야 현지 시장에 유통될 수 있음
  - 미국 FDA 등 타 국가 인증을 받아도 신규로 EFDA에 등록해야 함
- (유망 품목) 의약품, 의료기기(X-ray 기기 등)
  - 외화 할당 우선 품목군으로 L/C 개설 및 외화 할당이 용이

### 3-4. 에티오피아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에티오피아는 각국의 개발협력기구가 원조를 하는 원조 대상 국가
- 우리나라도 ODA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 다양한 공적자금 연계형 시장 진출 기회 모색 가능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에티오피아는 USAID\*, GIZ\*\*, JICA\*\*\* 등 각국 원조의 각축장, 우리나라도 에티오피아를 ODA 중점 협력 국가로 지정했으며 아프리카 국가 중 ODA 규모 최대
  - KOICA, 수은, KOFIH, 농진청 등 다양한 ODA 집행기관이 사무소 보유
  - \*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 German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ODA를 통해 시장을 경험, 납품 실적을 축적해 본격 진출
  - EIPP(컨소시엄), EDCF(수은), IBS(코이카), 산업 KSP(코트라) 등 각종 기업 지원형 프로그램 연계 진출을 권장
- (유망 품목) 에너지 발전, 교통, 인프라 구축 등
  - 에티오피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프로젝트 분야로 유망함

### 3-5. 산업 ODA 프로젝트 연계한 신시장 개척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일반 ODA 외 농기계·섬유 테크노파크 등 3건의 산업 ODA가 에티오피아에서 진행 중
- 산업 ODA 프로젝트와 연계해 해당 산업에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기반 확대 필요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산업 ODA 프로젝트 이후 우리 기업들의 에티오피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나, 최근 농기계·섬유기계 관련 산업 ODA와 연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시장이 포화 상태인 농기계 및 섬유산업 기업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신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에티오피아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산업 ODA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동계기에 우리 기업의 인지도 확산 필요
  - 산업 ODA 프로젝트 종료 후, 우리 기업이 후속사업을 통해 현지에서 기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유망 품목) 농기계, 섬유기계, 건설기자재 등
  -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기계·섬유기계 등 산업 ODA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후 에티오피아 시장에 진출 가능성 있음

### 3-6.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화 산업단지 투자 진출 고려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에서 사양 산업에 속하는 섬유·피혁·봉제업 등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전략 유치 산업
-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활용,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구축 참여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국에서 사양 산업에 속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에티오피아 정부는 전략적 투자 산업으로 정하고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 중
  - 저렴한 인건비, 일정 기간 법인세 감면 등 동남아 이후 차세대 진출 대상지
- 중국은 중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개발, 산업단지 선점을 가속화하고 있음
  - 산업단지 부지 임차료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한국기업을 위한 산업단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19.8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에 공감, 논의

####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에티오피아 산업단지에 투자 진출 고려 필요
  - AGOA·EBA 등을 통해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 공략 및 AfCFTA를 통해 아프리카 시장 개척 가능
  - \* 현재 AGOA는 혜택 중단 상태로 재개 시점은 알 수 없음
- (유망 품목) 섬유, 의류, 가죽 등
  - AGOA·EBA 수혜 품목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조성된 섬유 전용 산업단지 진출 시 미국·유럽 등으로 수출 용이

##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 1·2		
플라스틱 원자재, 석유화학제품	선정사유	플라스틱 원자재 및 석유화학제품은 제조업 육성책을 추진하는 에티오피아에서 긴요하게 필요한 제품으로, 향후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 높음. 특히 우리 기업 일부는 높은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 납품 기일 관리 능력 등 많은 점에서 우위를 보여 시장 선점에 성공
	시장동향	정부의 수입 대체 품목 개발 및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 집중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시설 투자 및 국가 기간산업 인센티브가 유지될 전망. 석유화학 3대 부문(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경쟁동향	원재료 가격 및 물류비가 지속 상승 중이고 현지 수요 예측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유럽에 비해 국내기업은 가격 경쟁력 및 적기 공급 대응 능력이 뛰어난 편. 주수입국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중국, 한국 등
	진출방안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바이어를 물색하는 것이 중요. 거래 전 바이어의 외화 자동 능력을 확인해야 함. 외환 우선 할당 2순위 품목임에도 외화 부족으로 L/C 개설, 대금 결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 필요
품목 3·4		
금고, 현금 자동 처리기	선정사유	에티오피아에서 최근 외국계 은행의 설립 허가가 나고 신규 은행이 증가함에 따라 금고 및 현금 자동 처리기 수요 증가 예상
	시장동향	최근 5년 동안 은행업 성장에 따라 관련 장비(계수기, ATM, 금고 등)의 공공조달 시장이 성장 추세
	경쟁동향	현지에서 일부 생산되고 있으나 주로 인도, 한국, 중국에서 수입하며 인도 제품이 전체 시장점유율 55%로 지배적. 기능 대비 가격에서는 한국산이 우위이나 가격 경쟁력 제고 필요
	진출방안	판매 후 고장 및 부품 교체 수요에 즉각 대응 필요. 정기적인 기술 지원 및 현장 A/S 지원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추후 연계 수주 가능. 외환 할당 우선 품목은 아니며 정부 직·간접 조달 벤더를 통한 조달 견제에 한해 비교적 조속한 L/C 개설 가능
품목 5		
의료기기	선정사유	에티오피아는 의료기기에 대해 수입의존적으로, 최근 EDCF 론을 통해 3,000만 달러 의료기기 지원. KOFIH의 ODA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되고 있음
	시장동향	코로나19 초기, 이동형 X-Ray의 수요 급증 후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정부와 의료기관은 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으며 X-Ray 장비를 포함한 각종 의료기기 조달 확대 가능성이 큼
	경쟁동향	국내 X-Ray 공급업체들은 톱티어 업체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중국·인도 업체 대비 훌륭한 품질 장점. 중국산 의료기기 비선호 현상을 바탕으로 중간 가격대의 밸류 세그먼트에 포진. 주 수입국은 중국, 미국, 한국, 독일, 이탈리아 순
	진출방안	역량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제품 등록 및 인증을 진행한 후 공공조달 시장을 노리는 것이 효과적. ODA 등을 통한 기자재 납품을 통해 시장 경험 쌓는 것이 좋음

품목 6		
의약품	선정사유	의약품은 필수품으로 외화 우선 할당 품목임
	시장동향	의약조달청의 공공조달을 통한 의약품 시장이 60% 이상으로, 조달청의 의약품 수입 계획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나 규모가 결정됨
	경쟁동향	EU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고가·고품질 의약품,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저가 의약품으로 시장이 양분
	진출방안	의약품 진출을 위해서는 에티오피아 식약청(EFDA)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므로, 역량 있는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격경쟁력도 중요
품목 7		
농기계	선정사유	에티오피아는 농업 국가로 농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 기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유망. 우리나라는 현재 농기계 R&D 센터 건립 사업 등 관련 ODA를 추진 중으로 연계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
	시장동향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관개 인프라, 농업 기계화, R&D 시설에 적극 투자 중
	경쟁동향	중국, 이탈리아, 미국, 인도가 전체 수입의 2/3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 Jon Deere사는 현지 기업과 JV SKD 공장을 설립하여 적극 시장 공략 중
	진출방안	현지 토양과 지형에 맞는 맞춤형 제품 개발이 필요, 현장조사가 필수적. 이를 위해 우리 농림수산부 및 산하 농진청·농정원과 협업, 산업부의 ODA와 연계하여 진출 시 기업 부담, 진출 리스크 감소 효과 큼
품목 8		
비료	선정사유	정부의 농업 생산성 수준 향상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용 투입재의 수요가 증가 전망. 외화 우선 할당 품목임
	시장동향	에티오피아의 농업 부문은 전체 GDP의 1/3을 차지. 정부는 농업 생산성 수준 향상을 목표로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등 현대 농업 투입물을 적극 장려 중. 대부분의 품목에 0%의 수입관세율을 적용
	경쟁동향	중국, 인도, 프랑스, 독일이 전체 수입의 2/3 이상을 차지
	진출방안	농업 투입재 등록 경험이 풍부하고 농업부 및 관련 연구소와 네트워크를 보유한 바이어를 물색하는 것이 중요. 비료 등은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현지 토양에 대한 테스트 선행 필요
품목 9		
전기차	선정사유	에티오피아 내 내연기관차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전기차량의 수요 증가, 한국산 전기차의 진출 가능성 확대
	시장동향	'22.10.14일 내연기관차 수입 금지 조치, 및 '22.9.15일 전기차 수입 시 부가세, 원천징수세, 소비세, 누진소득세 면제. 이후 전기차의 수입이 '22년에는 1,485% 급증, '23년 7월 말 기준 860% 급증
	경쟁동향	특히 중국산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21년 40%, '22년 81%, '23년 7월 말 89%로 급증하였으며 독일산, 일본산, 이탈리아산 전기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우리나라 전기차량의 수입규모는 26만 달러에 불과
	진출방안	내연기관 차량의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현재 기 수입된 내연기관 차량의 가격이 폭등하고 세금이 면제되는 전기차량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 주요 전기차량 딜러를 통해서 전기차량의 수출 확대 도모 가능

<p>품목 10</p>		
<p>자동차부품</p>	<p>선정사유</p>	<p>에티오피아 내 한국 차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p>
	<p>시장동향</p>	<p>자동차부품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내 모든 차량은 매년 부품 안정성, 교체 필요 여부 등 기술평가를 통과해야 운행이 가능. 따라서 차량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차량 정비 및 A/S 작업이 필수적이므로 부품 수요는 지속 증가할 수밖에 없음</p>
	<p>경쟁동향</p>	<p>전체 품목의 30%는 정품, 나머지 70%는 대체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여전히 품질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대체 브랜드를 선호는 편이나, 최근 한국산 부품이 가격·성능 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최근 젊은 부자층을 중심으로 한국산 차량(현대)의 구매율이 증가해 한국산 차량의 부품 수요 증가 기대</p>
	<p>진출방안 (참고)</p>	<p>사업의 안정적 확장을 위해서는 원활한 부품 공급 및 A/S 제공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 우호적인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부품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며 일본·유럽 등의 차종과 호환되는 범용성 제품을 저렴하게 애프터 마켓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 수입 L/C 외환 할당 우선 순위는 아니며 L/C 개설, 대금 결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p>

## 첨부 2

##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보건/의료	선정사유	코로나19 방역 대책 위한 검사/치료 등 보건 서비스는 정부 주도로 확충 중
	시장동향	로컬병원 운영 역량과 의료 기술 낙후로 검역·진단·응급·치료 부문에서 선진 서비스 수요 성장 중
	경쟁동향	우리나라도 선교 차원에서 명성재단에서 명성병원을 운영 중. 스위스 클리닉, 노르딕 병원, American Medical Center, 중국계 Silk Road Hospital 등 각국에서 자국민 뿐만 아니라 현지인 대상 의료 서비스 전개
	진출방안	단순 의료 기자재 등의 납품에서 나아가 국민 대상 건강보험 서비스 노하우 전수, 병원 운영 시스템 수출, 의료소모품 관리 서비스 등 ICT 및 프로젝트와 연계된 시장 진출 유망.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 등이 공공조달 형태로 공개 입찰 예정이며 보건·의료 분야의 EDCF뿐만 아니라 KOFIH 등 ODA 기관과 연계한 시장 진출이 유효
품목명 2		
인프라 건설 (항만, 도로, 전력)	선정사유	경제 개발을 위해 항만·도로 건설 및 개보수, 발전소 건설, 송전망 구축 등 인프라 전반 프로젝트 추진 중
	시장동향	대외 채무 조정 등을 위해 당분간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굴보다 기존의 지연된 메가 프로젝트 완성에 집중. 지연 프로젝트 완성 후 대규모 SOC 건설 프로젝트 신규 발주 예상
	경쟁동향	열악한 외환, 재정 부족에 따른 정부 예산 제약으로 대부분 프로젝트는 차관 공여국의 기업 간 경쟁 혹은 AfDB, World Bank 등으로부터 자원 확보 시 국제입찰을 통한 경쟁으로 진행. 시공 분야는 중국과 인도 등 저가 공세로 수주가 어렵고, 설계 감리 분야에서 유럽 및 미국 등과 경쟁 필요
	진출방안	우선 EDCF 프로젝트 통한 시장 진출 등 현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레퍼런스 및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MDB 자원 프로젝트 위주로 참여
품목명 3		
ICT 컨설팅	선정사유	에티오피아는 관련 시장 형성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ICT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
	시장동향	각종 제도·법 등이 정비되고 있는 단계로 향후 전자정부나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시장 기회 확대 예상
	경쟁동향	NGO, WB 등을 통한 NID 프로젝트 등이 EY 등을 통해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통합 컨설턴시를 행안부 ODA로 진행 중. ICT 컨설팅 시장은 초기 단계로 시장 선점 가능
	진출방안	프로젝트 수주에 앞서, 먼저 KSP 등 아국의 ODA를 통해 시장 경험을 쌓은 후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

##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해외 수주 프로젝트	주요 프로젝트 발굴 및 전파	연중/아디스아바바
공공조달 프로젝트	주요 공공조달 프로젝트 발굴 및 전파	연중/아디스아바바
개발 협력	KSP, EIPP 사업 홍보 및 발굴	연중/아디스아바바
상담회	화상상담회	연중/아디스아바바
정보조사	에티오피아 및 관할지 시장조사 및 전파	연중/아디스아바바
기타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 지원	연중/아디스아바바
전시회	Agrofood/PlastPrintPack 전시회 참가	2024.5.16~18/아디스아바바

## 첨부 4

##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차기 대선	'26년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BRICS 가입	'24.1.1	
증권시장 최초 개장	'24년(잠정)	
WTO 가입 추진	'24년(잠정)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Ethiopia Trade Expo	'24년 2월(잠정)	
Buildexpo Africa	'24년 2월 22~24일	Millenium Hall
Lightexpo Africa	'24년 2월 22~24일	Millenium Hall
Ethiopia Building Expo	'24년 3월(잠정)	Skylight Hotel
Hortiflora Expo	'24년 3월(잠정)	Millenium Hall
Dentexpo Ethiopia	'24년 3월 6~8일	Millenium Hall
Foodagro Ethiopia	'24년 3월 6~8일	Millenium Hall
PPP-Plastics Printing Packaging Ethiopia	'24년 3월 6~8일	Millenium Hall
Ethiopia Agrofood	'24년 5월 16~18일	Millenium Hall
Ethiopia PlastPrintPack	'24년 5월 16~18일	Millenium Hall
The Big 5 Construct Ethiopia	'24년 5월 30일	Millenium Hall
Agro-Agrotech Ethiopia	'24년 6월(잠정)	Millenium Hall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한나	관장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251-113-204-305	hanna4u@kotra.or.kr
2	문희원	사원	본사 아시아중아팀	+82-2-3460-7661	clairexmoon@kotra.or.kr

2024  
에티오피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ISBN : 979-11-402-0886-9 [95320]